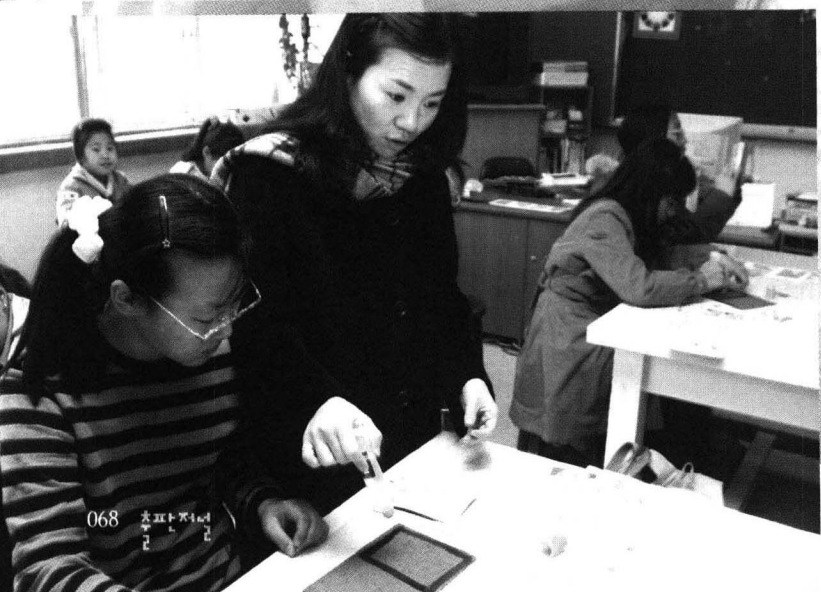


나만의 책을 만드는 아이들





서울 영동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 안. 아이들이 앉아있는 책상 위엔 책 표지로 쓸 가죽, 풀, 비어있는 알몸뚱이 책, 가름끈만 놓여 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금박기에 가죽표지를 대고 힘껏 누른다. 금세 가죽표지에 금박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마냥 신기해한다. 아이들은 가름끈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았다. 책을 읽다 책갈피로 쓰는 가름끈을 만들기 위해 책등 윗부분만 단단하게 풀칠하고 책사이로 가름끈을 끼운다. 가름끈, 책등, 책머리, 책 밑, 책배... 모두 생소한 단어지만 아이들은 몇 번씩 읊조리며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독서보다는 인터넷 게임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책을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떤 의미일까. 책 만드는 체험학습을 통해 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자는 게 '책 만드는 버스'를 운영하는 김진섭 씨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2004년 7월부터 책 만드는 버스를 운영해 온 김 씨도 초등학교 학생 아들이 있는 아버지다. 초등학교 아들의 독서노트를 보고 책 만드는 버스를 생각해 냈다고 한다. 1,500만 원을 들여 45인승 중고버스를 구입하고 대형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1종 대형면허도 뒀다. 대형버스 안에는 종이펄프, 발, 틀과 같은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도구에서부터 인쇄할 데 필요한 동판, 롤러, 압착기, 금박기, 입조기 등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자가 실려 있다. 비용은 1~2만 원 가량으로 재료비 외엔 강의료는 받지 않는다. 기본 프로그램은 종이 만들기부터 판화 체험, 가족을 소개하는 그림책 만들기, 독서노트 만들기, 수첩 만들기 등 다양하다.

영동초등학교 6학년 손가영 양은 "두 번째 책을 만드는데도 또 새롭다"며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익숙해진 모습이다. 아이들은 책을 만들면서 연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서툴지만 자못 진지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책에 일기를 쓰겠다는 어린이,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주겠다는 어린이, 만화를 그리는 데 사용하겠다는 어린이 등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5학년 3반 담임 이계홍 교사는 "아이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봄으로써 창의력을 키우고 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 1 영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손수 만든 책을 들어 보이며 뿌듯해했다.
- 2 처음 책을 만들어보는 경험이라 어렵지만, 아이들은 책 만드는 순서를 잘 따랐다.
- 3 금박기를 이용해 책표지에 글자를 새긴다.
- 4 김진섭 씨가 사재를 털어 개조한 책 만드는 버스
- 5 책 만드는 버스 속에는 책을 만드는 도구들이 실려있다.